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pp.139 15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제7차 교육과정과 천도교의 종교교육

송 준 석

(전남도립담양대학)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천도교의 종교교육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천도교의 경우 아직까지 종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념으로 운영되는 동천고등학교가 유일하다. 고등학교용 종교교과서로 천도교교육자회가 펴낸 「천도교」가 유일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

천도교는 종교과목의 내용에 폭넓고 균형 있는 종교지식,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민족종교로서 독특성과의 의의를 알려야 할 것이다.

천도교는 인간존중과 평등사상의 귀한 종교사상등을 각종 출판 문화교육사업 등을 통해 전파하고 알리는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천도교는 정규학교를 갖고 있지 않기에 제7차 교육과정의 지침의도에 맞추어 청소년들을 위한 비정규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하고 쉬운 단기간의 연수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천도교는 다른 종교와 더불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동천고등학교, 천도교교육자회, 「천도교」 제7차교육과정, 인간존중, 평등사상 비정규적인 교육활동, 다양하고 쉬운 단기간의 연수교재

I. 서론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두면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¹⁾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종교교육이 건전한 인격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전제할 때 천도교의 종교교육은 어떤 측면에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과목은 교양교육과정에 속해 있다. 교양 교육과정은 전인교육의 입장에서 지식편중에 흐르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 있는 삶, 삶과 죽음의 문제 등을 탐구하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통해 자신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경제 생활 능력을 기르며,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높이고,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 인간의 발달, 학습, 성장 등에 관한 심리적 이해 등 다양하고 폭 넓은 교육을 통하여 생활인으로서의 교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²⁾

그러기에 학교장의 재량 사항이기는 하지만 교양과목은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철학, 생활경제, 종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종교 교과목을 선택할 시는 복수과목으로 하여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도록 하였으나 교과서가 종교별로 개발되어 참된 의미의 교양교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교 평준화정책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학교배정을 받고 있는 실정 이기에 특정 종교를 정규교과로 가르치는 것은 종교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신앙적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종단학교에서는 여러 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종교관을 가지고 건전한 신앙생활의 태도를 기르는 참된 의미의 교양교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천도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중등학교는 부산의 동천고등학교가 유일하다. 그러기에 본교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종교과목의 성격, 기본목표, 세부목표 및 내용구성에 근거하여 동천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천도교 교육자회

1) 이경환 외, 『제7차 교과총론』, 교육부, 1997. 107쪽.

2) 유위준 외, 『종교』,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해설(교양편)』, 2000. 2쪽.

발행의 「천도교」³⁾라는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하고 천도교가 별도의 학교를 갖고 있지 않기에 천도교종단 주체의 특별활동이나 그 밖의 비정규적 교육활동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그러기에 본 논문은 천도교 종교교육에 대한 현실적 검토와 문제제기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I. 교양교육과 종교교육

교양교육하면 대학에서 처음으로 받는 교육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야 전공필수·선택, 교양교육이라는 용어를 대하게 되니 초·중·고등교육에서는 교양교육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초·중·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가 전인교육의 입장에서 생활 속의 교양인으로 살아가는데 기반을 제공하는 교양 교육과정이라 볼 수 있다.

구태여 몇 개의 인문사회교과(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에 한정하여 교양교과로 따로 두는 것은 교과구성상 영성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입시위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오직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 의미에서는 교양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 준다는 의미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전통적 의미에서 교양교육이란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초교육으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키워주는 전문기술교육(Special Education)과 구별된다. 영어로는 'Liberal Education'과 'General Education'에 해당한다.⁴⁾ 'Liberal Education'은 희랍시대에 있어서 노예계급이 아닌 자유인을 위한 교육에서 연유하며 'General Education'은 미국에서 대학교육을 전문화와 직업주의로부터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전개 발달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균등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는 의미의 새로운 교양교육인 것이다. 결국 일반교육은 유서 깊은 자유교육에서 강조하는 지적이고 자기 창조적인 측면과 인간의 노동의 열

3) 천도교 교육자회, 『천도교』, (서울: 천도교 교육자회, 1995).

4) 일본에서는 cultural education이라 칭하기도 한다.

망을 충족시켜주는 직업교육을 융화시키는 전인교육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학교육은 전문교육이나 기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점점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는 아주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 당장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지 교양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과거에 재직한 대학에서 “교양계열 교육과정의 개혁방향”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양교육의 성격을 ① 교양교육은 전인적 인간을 형성케 하는 자유교육이다. ② 교양교육은 인간을 지적으로 자유케 하는 교육이다. ③ 교양교육은 인간을 정서적으로 자유케 하는 교육이다. ④ 인간을 기술적으로 자유케 하는 교육이다. ⑤ 교양교육은 인간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⑥ 교양교육과정 구성은 지식의 구조와 체계 그리고 학습자의 지적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⑦ 교양교육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일곱 가지 명제로 나누어 설명과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대학의 교양교과에 대한 설명이기에 현행 7차 교육과정과는 동떨어진 감이 있긴 하지만 연속선상에서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양 교육과정의 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초·중·고등의 모든 교과에 있어서 교양교육의 성격을 고려하여 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논의했듯이 일선학교의 현실은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Mayer가 표현한대로 덕과 지를 분리시키는 편협한 교육 비참한 교육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사실 지식의 습득은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명확하게 재고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작용한다는 잇점 하나로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인교육을 주창한 Pestalozzi는 지력, 도덕력, 기술력의 3가지 기능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된 힘이 바로 심정력인 도덕력이라고 했다. 미국의 Notre Dame 대학교 총장을 지낸 D. M. Hertzberg가 “가치를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며 교양교육 없이는 불가능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들이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을 나온 수재들이

5) 송준석, 「교양계열교육과정의 개혁방향」, 『대불대학교 대학학사개혁을 위한 세미나』, 1999. 5. 31 미간행출판물.

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가치관이 없는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양심만이 높이 평가 되는 기술문명사회의 병폐를 여지없이 반영한 것이다.”라는 표현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현실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기에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기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있는 일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교양교육 중에서 종교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종교교육학회의 기획논문 취지에 “질 높은 인간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는 종교교육을 통해 온전한 인격형성과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의 양육이라는 교육 목표를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신앙적 종교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학적 종교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1999년 교육부의 종교에 대한 교육과정 심의자료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일선 종단학교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7차 종교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는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을 병행하는 기존의 종교교육 과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⁶⁾ 그러나 종교학적 종교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종교과목은 종교에 대한 기본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통해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과목이다.⁷⁾

우리는 흔히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의문에 빠진다. 그럼으로 인해 인간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에서, 실존, 진정한 삶에 대한 문제, 더불어 살아야 할 공동체에 대한 물음, 최고 가치에 대한 물음을 비롯하여 시간 속에서 영원을 찾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수 천년 동안 지켜온 민족의 순수성과 동질성을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종교교육을 통하여 종교적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종교는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과 성스러운 가치의 이해라는 종교적 관심을 중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찰하여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⁸⁾

6) 유위준 외, 위보고서 124쪽.

7) 위의 책, 128쪽.

이러한 성격에 걸맞게 종교과목의 기본목표를 ①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②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하며 ③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기르는데 있다고 제시해 주고 있다.⁹⁾

한편 윤이흠¹⁰⁾은 다종교 사회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교교육은 사회를 안내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팽창주의적 선교 교육을 넘어서 이웃 종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다종교 상황이 현대사회규범을 수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종교문화교육의 교육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교육, 즉 종교학의 보급이 이 시점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종교의 객관적인 이해, 곧 종교학의 보급은 종단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문화정황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보다 성숙된 선교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정비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반지성적 독단론과 폐쇄성을 넘어서 다원가치 사회에서의 균형 있는 개방 사회를 창조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근거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할 것이다. 종교는 그 자체가 삶에 있어서 올바른 가치 있는 인간으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기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천도교인인 백세명이 “인간의 개량은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실제에 있어서는 인간을 개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개량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인간만 개량된다면 모든 것을 다 개량될 것으로 보아도 망발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종교의 참 가르침은 인간의 가치로운 존재로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교양교육에 있어서 종교교육이 가지는 의의를 되새기게 한다.

8) 위의 책, 128쪽.

9) 위의 책, 129쪽.

10) 윤이흠, 「다종교문화 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 한국종교학회, 1986, 7쪽. 성주현, 「교양교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천도교를 중심으로」, 2000, 종교교육학회 발표논문에서 재인용.

Ⅲ. 천도교의 종교교육 현황

- 천도교의 고등학교용 종교 교과서 『천도교』 분석 -

본 장에서는 천도교의 초·중·고등 종교교과서 중 유일한 천도교 종교교과서인 「천도교」의 교과내용을 분석하여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 성숙한 신앙심, 다른 종교포용과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바른 종교인이 되기 위한 목표와 내용이 담겨있는지 분석해 보자.

「천도교」는 전체 6장으로 이루어진 부산동천고등학교에서 종교 교육용 교과서다.

차례는 다음과 같다.

I. 겨레, 그 믿음이 뿌리

1. 자연과 조상을 위하는 마음
2. 하늘을 반드는 마음
3. 외래 종교의 전래(傳來)
4. 화랑도(花郎道)
5. 외래 종교의 부흥과 쇠퇴

II. 동방(東方)의 등불

1. 암울(暗鬱)했던 시기
2. 어둠 속의 광명, 동학(東學)의 창도(創道)
3. 포덕(布德)과 교화(教化)
4. 은도 시대(隱道時代)와 순도(殉道)
5. 현도 시대(顯道時代)의 개막과 재정비 강화
6. 일제(日帝) 침략기

III. 새 이념(理念)과 질서

1. 한울님은 어떤 존재인가?
2. 시천주(侍天主)의 새 신앙
3. 한울님을 모시는 새 인간관
4. 사인 여천(事人如天)의 새 윤리
5. 개벽 운수(開闢運數)
6. 새 인간형의 창조

7. 지상 천국(地上天國)의 건설

IV. 구국(救國)의 발자취

1. 갑오 동학 혁명(甲午東學革命)
2. 갑진 개혁 운동(甲辰改革運動)
3. 기미 독립 운동(己未獨立運動)
4. 신문화 운동(新文化運動)
5. 민족 자주 통일 운동(民族自主統一運動)

V. 경전(經典)과 주요법설(主要法說)

1. 수운 대신사(水雲大神師) 편
2. 해월 신사(海月神師) 편
3. 의암 성사(義菴聖師) 편
4. 춘암 상사(春菴上師) 편

VI. 천도교 의절(天道敎儀節)

1. 교조(敎祖)
2. 교회 기념일(記念日)
3. 입교식(入校式)
4. 오관(五款)의 실행
5. 수도(修道)
6. 포덕(布德)과 계명(戒名)
7. 혼례(婚禮)
8. 상례(喪禮)
9. 제례(祭禮)

차례에서 드러나듯이 이렇듯 「천도교」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겨레, 그 믿음이 뿌리는 상고이래 우리조상들이 간직해 왔던 민족 교유의 신앙과, 수시로 이 땅에 흘러 들어온 외래종교, 그리고 오늘날 고유신앙의 발전된 모습을 고찰하고 있다. 제2장 동방의 등불은 동학의 생성원과 수난사 그리고 시련의 극복과 성장발전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3장 새 이념과 질서에서는 영고성쇠하는 삶의 역사속에서 새로운 광명이 무엇인가의 의문을 제기하며 한울님, 시천주, 새로운 인간관, 사인여천의 새 윤리, 개벽운수, 새 인간형의 창조를 통해 지상천국의 이상사회를 건설하자고 주장한다. 제4장 구국의 발자취에서는 개화기와 격동기를 맞이하여 천도교가 갑오동학혁명, 갑진개혁운동, 기미독립운동, 신문화운동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통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어떻게 이바지 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5장 경전과 주요 법설에서는 수운의 천도교의 근본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해월의 법설 중 대인접물, 수심정기, 성경신 부화부순, 용시용활, 삼경, 양천주, 내칙, 내수도문을 설명하고, 의암의 무체법경, 각세진경, 삼전론 성령출세설 위생보호장, 천도교와 신종교, 신앙통일과 규모일치를 춘암의 여러 가지 교화론을 예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제6장 천도교의 절에서는 천도교의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의절을 생활개혁차원에서 각종 교회기념식과 관혼상제의 생활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주로 천도교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신앙 입문서적 종교 교과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나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성은 별도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것이 천도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교과서도 비슷한 처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오상준이 쓴 생활지침서적 성격을 지닌 천도교의 교리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초등교서』¹¹⁾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교과서로 더 적합하다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초등교서』에서는 나, 종교, 사회, 국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그 구성에서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¹²⁾ 물론 천도교의 우월성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있기에 다른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나 포용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국가사회에 밝은 빛이 되는 바른 종교인이 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각된다.

한편 1994년에 개교한 부산 예술문화대학은 천도교인인 안관승이 설립한 학교로 천도교교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도교의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다.¹³⁾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1) 오상준, 『초등교서』, (서울:보문관, 1907)

12) 제1장 天德 제2장 師恩 제3장 吾天 제4장 吾教 제5장 吾天의 要素 제6장 吾教의 精神 제7장 人의 職分 ① 內課 ② 外課 제8장 人의 自由 제9장 人의 資格 제10장 衣食住의 關係 제11장 衛生 ① 肉身衛生 ② 性靈衛生 제12장 經濟 제13장 國家 제14장 我國의 精神 제15장 法律의 概義 제16장 人民 及 國民 제17장 個人과 團體의 關係 제18장 吾와 吾教와 吾國과의 關係 제19장 吾教人의 義務 제20장 道德 제21장 倫理 제22장 慣習 제23장 正心 제24장 誠意 제25장 結論

13) 천도교의 경우 대학과정의 교육을 시작한 것은 1909년 수업기간 1년의 사범강습소를 운영한 것이 처음이다. 1922년 교역자 양성을 위한 본과, 예과, 속성과 3개 과정을 둔 중학원이 설립되었다. 일제하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한국인의 대학교육에의 염원을 담

초·중·고등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교양교육의 내용 중 종교에 관련된 교과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에 적용가능성이 있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예술문화대학에서는 1학년은 「인간과 종교」를 2학년은 「동학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제7차 교육과정에 준하여 평가하자면 「인간과 종교」¹⁴⁾는 객관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종교를 이해하고 종교 본래의 목적인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동학의 이해」¹⁵⁾는 동학의 경전을 중심으로 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문화 예술대학의 종교 교양교육의 운영은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두면서 다양한 종교의 이해와 타종교간의 대화와

아 1933년 천도교 청년당에서 대학수준의 국문대학교재 ‘자수대학강의(自修大學講義)’가 발행되었으나 1933년 7월부터 월간으로 총13권을 내고 중단되었다. 그후 천도교의 대학 또는 대학과정의 교양교육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해방 후 천도교 교단측에서 대학설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고 천도교 이념으로 천도교적인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부산예술문화대학이 유일하다.

- 14) 인간과 종교의 교과지도 목표는 “종교 다원주의의 현실에서, 여러 문화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종교를 이해함으로써, 종교간의 이해와 대화의 폭을 넓히고, 종교의 본래의 목적인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긴다. 세계화의 흐름과 새 천년을 맞아 세상을 보는 안목과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태계 위기와 인간성 상실, 물질 만능, 빈곤, 핵문제, 인권문제 등의 여러 위기 속에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상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생각해 본다.”이고 교재내용은 “① 종교란 무엇인가 ② 종교 다원주의의 이해 ③ 종교의 기원 ④ 종교의 본질 ⑤ 현대인과 종교생활 ⑥ 종교체험과 종교현상 ⑦ 한국의 종교 종교와 예술 ⑧ 종교와 문화 ⑨ 새로이 다가오는 영성의 시대 ⑩ 뉴에이지 혁명 생태계 위기와 지구 윤리 ⑪ 21세기의 새로운 윤리 ⑫ 새로운 시대의 여성의 역할 ⑬ 패러다임의 전환 ⑭ 종합 토의”로 구성되어 있다.
- 15) 동학의 이해 교과지도 목표는 “19세기말 암울한 시대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나온 동학은 기존의 유불선을 합일하여 시천주와 인내천의 위대한 가르침을 내놓음으로써 이후의 동학혁명, 갑진개화혁신운동, 3.1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수운 선생의 시천주와 개벽사상, 해월 선생의 삼경과 향아설위 등의 사상은 이 위기의 시대에 근본적이고도 새로운 형이상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해월신사 법설을 중심으로 동학의 사상과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이 시대의 문명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이고 교재내용은 “① 동학이란 무엇인가 ② 수운 최제우의 생애와 사상 ③ 해월 최시형의 생애와 사상 ④ 의암 손병희의 생애와 사상 ⑤ 동학 운동사(동학혁명, 3.1운동, 신문화운동) ⑥ 동경대전 포덕문 ⑦ 동경대전 논문학 ⑧ 동경대전 수덕문 ⑨ 동경대전 불연기연 ⑩ 용담유사 ⑪ 해월신사 법설 - 천지부모, 대인접물 ⑫ 해월신사 법설 - 수심정기, 성경신 ⑬ 해월신사 법설 - 내칙, 내수도문 ⑭ 해월신사 법설 - 향아설위 ⑮ 무체법경의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화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학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위기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⁶⁾ 이를 통해서 고찰해 보건대 이 두 교과서를 초·중·고등 수준에 맞게 다시 쓰고 엮어낸다면 비교적 제7차 교육과정에 합당한 종교교과서가 개발되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천도교의 신앙적 측면만 더 보충하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천도교의 비정규적 교육활동으로는 하계수련회, 성지순례, 수운예술제 및 한울학교 등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성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겪고있는 많은 모순을 자신, 이웃 및 국가사회로부터의 소외 극단적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환경파괴, 부정부패 및 퇴폐풍조의 만연 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교육프로그램을 천도교가 주체가 되어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다. 우리나라 미래가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청소년 교양연수프로그램을 위한 천도교의 교육과정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단학교가 없는 현실을 고려컨대 폭넓은 차원의 교육의 개념을 항시 염두 해야 한다.

IV. 천도교의 종교교육방향

일전에 필자가 존경하는 대학 은사님께서 절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천도교를 순박한 농민에 비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종교는 세태에 민첩하게 대처하고 선교사업도 잘해 교세가 확장되었지만 천도교는 묵묵히 종교의 정신을 민족과 함께 굳건히 지켜왔다는 것이다.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선교정신이 투철치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오히려 교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종교에 비해 쇠퇴해 간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앞으로 천도교는 선교사업과 더불어 출판교육사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좀 더 포용적인 입장에서 다른 종교의 이해에 기반하여 천도교의 종교정신의 소중

16) 성주현, 앞의 논문, 8-10쪽.

함을 알리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도교의 정신을 올바르고 분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종교입문서 선교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천도교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사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필자 나름대로 종교교과서를 제7차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구성하여 보겠다. 성주현은 “교양과정의 종교교육의 내용은 인간과 종교를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참된 삶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으로 하고 싶다.”¹⁷⁾고 표현하고 있다. 필자도 성주현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배타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선교 교육을 넘어 타종교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 사회구현에 힘쓰는 차원으로까지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7차 종교교육과정지침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모두 네 가지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싶다.

첫째 부분은 종교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일반종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종교에 대한 기본개념과 종교경험의 내용과 특성을 문화적 토대 위에서 설명한다.

둘째 부분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존재하는 종교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단원이다. 서로 다른 종교 즉 기독교, 불교, 유교 및 이슬람도 등 다양한 종교의 역사적 문화적 조건을 고찰한다.

셋째 부분은 종교와 관련된 인간, 자연,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는 단원이다. 삶의 공간속에서 삶의 주체인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인간 삶의 토대가 되는 종교공동체의 형성과 그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한국사회에 있어서 종교문화는 어떠한지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넷째 부분까지는 각 종단의 대표집필진들이 모여 서로 많은 논의를 하여 공동의 견해를 담은 공동집필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천도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종교가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제 각 종교들은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은 공동의 입장을 담은 책이 필요하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공통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종교갈등에 의한 타종교간의 비극적인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공동의 이해관계는 항시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존중, 평화, 환경 ... 등은 우리가 공동으로 이해가 가능한 분야이다. 이러한 공동의 분야를 많

17) 위의 논문 13쪽.

이 확보하는 것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천도교는 자신을 존경하고 나아가서는 남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 모든 사물을 존중하는 온갖 차별을 불식하는 세계의 구축을 염원하기에 바로 대립과 갈등의 세계를 극복하고 화해 상생하는 평화의 세계건설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부분은 현재 천도교 교과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천도교 종단의 현실을 고려하여 천도교 탄생유래, 역사, 경전, 교리,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윤리 등을 상세히 서술해야 한다.¹⁸⁾

마지막 부분은 앞장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천도교 종단의 입장을 좀더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기적 맥락 속에서 쓰여져야 할 것이다. 천도교 자체의 독창성과 귀한 생각들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천도교의 종교교육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천도교의 경우 아직 종단내 학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 받는 고등학교로는 동천고등학교가 유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종단이 중심이 되어 교과를 개발한 것은 고등학교용 교과서로 천도교 교육자회가 펴내고 천도교 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가 감수한 「천도교」가 유일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 선교적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종교과목의 내용에 ①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②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하며 ③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기르는데 있다는 목표에 근거하여 민족 종교의 독창성과 그 의의를 알려야 할 것이다.

18) 예를 들면 시천주사상, 사인여천 윤리, 삼경사상, 수심정기, 성경신, 부화부순, 환경교육, 태교, 어린이 교육 등의 다양한 내용을 보통의 사람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종교단체가 연합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 천도교에서도 보편적이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윤리적 측면에서 귀중하고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내용을 개발하고 퍼내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계는 있지만 오상준이 펴낸 『초등교서』는 학교용 교과서는 아니지만 교재 편찬과정에서 참고 할 만 하다.

인간존중과 인간평등사상을 담고 있는 천도교는 귀한 종교의 사상 등을 전파하고 알리는 종단적 규모의 각종 출판, 문화, 교육사업에 책무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초·중·고등학생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아름답고 쉬운 말로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천도교는 정규학교를 갖고 있지 않기에 정규교과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천도교의 귀한 사상을 청소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정규교육활동에 필요한 단기간의 연수교재라도 제7차 교육과정의 지침의도에 맞추어 다양하게 개발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고영철 외, 『교육학의 이해』, 서울 : 학이당, 1997.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해설(교양편)』, 교육부, 2000.
 성주현, 「교양교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천도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12,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송준석, 『교양계열 교육과정의 개혁방향』, 대불대학교, 1999.
 송준석, 『동학의 교육사상』, 서울 : 학지사, 2001.
 오상준, 『초등교서』, 서울 : 보문관, 1907.
 이경환 외, 『제7차 교과총론』, 교육부, 1997.
 천도교교육자회, 『천도교』, 서울 : 천도교교육자회, 1995.
 천도교청년당, 『자수대학 강의(영인본)』, 서울 : 경인문화사, 1972.
 Hutchins, R. M., 『자유를 위한 교육』, 송준석 역, 서울 : 학지사, 1994.
 Ortega Y Gasset, J., *Mission of the Universit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6.
 Snow, C. P., 『두 문화와 과학혁명』, 오영환 역, 서울 : 박영사, 1997.

The 7th Curriculum and religious education in Chondogyo

Song, Joon-Suck

(Provincial college of Damy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religious education in Chondogyo relying on the 7th Curriculum. In case of Chondogyo, The religious order doesn't have his own school but Dongcheon High School is the only school that is managed by the faith of Chondogyo 「Chondogyo」 is the only religious text for high school that was published by teacher committee of Chondogyo, but the contents of text is different from the necessary condition of the 7th Curriculum, and so Chondogyo must publish the text not only containing wide and balanced Knowledge of religion, matured faith to overcome the problem of life, comprehension of other religion and desirable attitude of life as a religious man but also informing students of originality and meaning of national religion.

Chondogyo has responsibility for spreading the important religious thought, respect of man and egalitarianism, by means of publication,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y.

Chondogyo needs to develop a various and easy short-term study book for informal educational activity of young boys and girls according to the guideline of the 7th curriculum because of not having formal school.

Chondogyo gathers the wisdom to develop the textbook with other religious organism.

Key words: Dongcheon High School, teacher committee of Chondogyo, 「Chondogyo」 the 7th Curriculum, respect of man, egalitarianism, informal educational activity, a various and easy short-term study book.